

■ 주요 기사

○ 기간제 근로 편법계약 관련(5건)

조선	무기계약직 안해주려 '쪼개기 근로' 기업 꼼수 제동
매경	비정규직 '쪼개기 채용' 대법서 제동
한경	정규직 전환 안 시키려 11년간 '해고-재고용' 반복
경향	"2년 미만 계약 갱신해온 건설공사 기간제...근로 계속성 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한겨레	대법원, 정규직 전환 회피 기업 '편법'에 제동

○ 청년실업률 관련(3건)

동아	청년실업률 10.7%... 美보다 나빠졌다
	청년실업률, 日 5.2%의 2배 수준... 25~29세 실업자 수는 더 심각
매경	韓청년실업률, 16년만에 美추월

○ 대선주자 육아정책 관련(2건)

경향	[맘고리즘을 넘어서]여성이 책임지는 '돌봄' 구조...대선주자에 해법 물었습니다
	[맘고리즘을 넘어서]'맘고리즘' 바꾸고 고치고 끊어 1인2역 지친 '맘' 어루만진다

○ 업무상 재해 관련(2건)

조선	[땅, 땅... 오늘의 판결] 점심 먹고 공사장 복귀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중앙	"점심 먹고 복귀 중 사고, 업무상 재해"

■ 주요 칼럼 · 기고

○ 일자리 창출 관련(2건)

조선	더 신뢰할 만한 일자리 공약을 기대하며 (박병원 경총 회장)
한경	[사설] 유독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 기본소득 관련(1건)

한겨레	[2030 잠금해제] 1700만 백수의 가치 / 박정훈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조선	노동	제목	[땅, 땅... 오늘의 판결] 점심 먹고 공사장 복귀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A10면	
		내용	법원은 "현장에는 구내식당이 없어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해 왔고 비용을 철거업체가 부담했으며, 사고는 식사 후 현장복귀 중 발생했다"며 "사회 통념상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봐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판결	
	제목	무기계약직 안해주려 '쪼개기 근로' 기업 꼼수 제동 A12면		
	내용	구씨는 2015년 6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회사의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 대법원은 해고 무효 소송에서 구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구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고용 복지	제목	[朝鮮칼럼 The Column] 더 신뢰할 만한 일자리 공약을 기대하며 (박병원 경총 회장) A30면		
	내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이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야 '돈을 쓰는 일자리' 하나를 지탱할 수 있는지도 잘 따져봐야		
중앙	노동	제목	"점심 먹고 복귀 중 사고, 업무상 재해" A19면	
		내용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업무 공간을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고용 복지	제목	[리셋 코리아] "초저출산 시작된 2002년 이후 세대, 일자리 우선권 주자" A8면	
		내용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들은 "과거 출산 장려 정책을 리셋해야 초저출산 세대들이 저출산을 대물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환경		제목	[간추린 뉴스] 배출가스조작 차량 환불·교체 기준 개정 A19면
			내용	배출가스·인증서류 조작 등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차량 환불 명령이 내려졌을 때 기준 금액은 차량 공급가격 외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
		제목	갯벌·산호 ... 바다에서 온실가스 새 흡수원 찾아야 A24면	
		내용	장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최근 생태계 복원 작업에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하는 것이 해양환경 분야의 새 패러다임"이며 "삼면이 바다인 한국도 이런 변화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함	

매체명	주 제		
동아	노동	제목	안철수 “중소임금 대기업의 80% 받게 정부지원을” A1면
		내용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12일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이 대기업의 75~8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
	고용 복지	제목	청년실업률 10.7%… 美보다 나빠졌다 A1면
		내용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 실업률은 10.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10.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미국(10.4%)보다 높아졌는데 2000년 이후 처음
		제목	“일자리만 생긴다면”… 선진국 진보정권, 보수정책도 적극수용 A4면
		내용	탄핵정국 이후 조기대선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 성장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진보 후보들 사이에서는 재벌 해체와 규제 강화 등 ‘진영 논리’만 쏟아지고 있음
제목	청년실업률, 日 5.2%의 2배 수준… 25~29세 실업자 수는 더 심각 A4면		
내용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후반 실업자는 23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명 늘었다. 20대 후반 실업자는 2014년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뒤 2015년 5000명(전년 대비 기준)이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		
매경	노동	제목	비정규직 ‘쪼개기 채용’ 대법서 제동 A29면
		내용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려고 예외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기업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검
고용 복지	제목	韓청년실업률, 16년만에 美추월 A12면	
	내용	OECD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만 15~24세 실업률은 전년 대비 0.2%p 상승한 10.7%. 이는 2000년(10.8%)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1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10.4%)을 넘어선 것	
한경	노동	제목	정규직 전환 안 시키려 11년간 ‘해고-재고용’ 반복 26면
		내용	1년 단위로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해 온 기업들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용 복지	제목	[사설] 유독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35면	
	내용	정치가 움직일수록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표 계산으로 나온 실업대책은 실업 조장책에 불과. 시급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지연시켜 악순환만 심화. 한국의 청년실업률 급증은 노동시장 경직성의 방증	

매체명	주 제		
경향	노동	제목	정의당 심상정 노동공약 “임기 5년 내 정규직 고용 80% 달성” A6면
		내용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힘. 비정규직 공약 중 하나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과 각을 세움
	고용 복지	제목	“2년 미만 계약 갱신해온 건설공사 기간제…근로 계속성 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A10면
		내용	대법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하로 갱신해서 체결하는 ‘꼼수 계약’에 제동을 걸
		제목	[맘고리즘을 넘어서]여성이 책임지는 ‘돌봄’ 구조…대선주자에 해법 물었습니다 A1면
		내용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 확대, 칼퇴근법 등을 발표하는 등 선도적으로 정책을 내놓음. 심상정 대표가 남성 육아휴직 의무할당 등을 핵심으로 하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표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임금 감소 없는 유연근무제를 제시
제목	[맘고리즘을 넘어서]‘맘고리즘’ 바꾸고 고치고 끌어 1인2역 지친 ‘맘’ 어루만진다 A8면		
내용	■문재인-임금 줄이지 않고 노동시간 줄이기 ■안희정-육아휴직 장려하면 기업에 세제 혜택 ■이재명-근로감독관 늘리고 여름휴가는 2주로 ■안철수-성평등 공시제도로 일·가정 양립 도와 ■유승민-육아휴직 최대 3년…돌발노동 금지법도 ■손학규-관리·감독 강화해 저녁 있는 삶 실현 ■남경필-육아휴직 장려 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심상정-남편 유급 출산휴가 최대 30일까지 확대		
한겨레	노동	제목	대법원, 정규직 전환 회피 기업 ‘편법’에 제동 16면
		내용	대법원이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며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악용해온 관행에 제동
고용 복지	고용 복지	제목	[2030 잠금해제] 1700만 백수의 가치 / 박정훈 25면
		내용	‘공짜밥’이 화제. 논란을 촉발한 건 ‘기본소득’. 부자든 백수든 국민이면 돈을 주자는 기막힌 내용. 문제는 공짜밥이 아니라 공짜노동. 진짜 놀고먹는 사람은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투기꾼, 공동체가 만든 가치를 공짜로 가져가는 대기업

<끝>